글로벌 악재에도…광주·전남 식품 수출 대폭 늘었다

10월 5억2600만달러…주류·전복 등 전년비 두 자릿수 증가
러시아 75.7%·튀르키예 52.4% 상승…'K-푸드' 인기 실감

국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주·전남 식품 수출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과 전복 등 수산물을 필두로, 건강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남의 일본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가로의 수출액은 4억73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비중은 일본(26.2%), 중국(18.0%), 미국(17.8%)순으로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경우 작년보다 수출액이 15.3% 늘었고, 중국(28.7%)과 러시아(75.7%), 태국(38.5%)도 눈에 띄는 상승폭을 그렸다.

올 10월까지 전남의 전체 수출액은 5억26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품목별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수산가공품'이 1억4500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김' 8억6000만달러, '농산가공품' 4억4000만달러, '전복 등 조개' 3억8000만달러, '낙농품' 2억4000만달러, '곡류'와 '모류'가 각각 1억8000만달러, '미역' 1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10대 국가 대상 수출액 1억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별 수출비중은 일본(29.1%), 홍콩(21.4%), 러시아(14.6%) 순으로 많았다. 광주의 식품 수출액 또한 전남과 마찬가지로 'K-푸드'에 열광적인 일본(46.3%↑)과 홍콩(25%↑), 튀르키예(52.4%)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의 대표 수출품목은 '맥주 등 주류'로 전체 수출액(1억13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인 52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어 '담배 등 연초' 1900만달러, 과일향 음료 1400만달러, 김 1300만달러였다.

이-팔 갈등과 고금리, 높은 원자재값 등으로 지역 식품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수출 목표는 높게 잡았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 광주전남 식품 산업 수출 현황 및 활성화'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식품 수출기업 64곳 가운데 43.5%가 2024년에는 수출환경이 악화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25.8%, 좋아 질 것이라는 응답은 30.7%였다.

그럼에도 40.3%가 내년도 수출액 5% 이상의 증가를 예상했고,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27.4%나 됐다.

지역 식품 수출기업이 관심 갖는 시장은 북미였다.

기업들은 2024년 목표 수출 시장으로 북미(39명)를 1위로 꼽았고 동남아(37명), 일본(24명), 중국(20명) 순이었다. 2023년 목표 수출시장에서 북미는 32명으로 동남아(33명)에 이어 2위였으나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전남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식재료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택했고, '국내외 금리인상'(2위),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3위)도 호소했다.

반면 이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해외운송 물류비 지원'으로 조사됐다. 기업 71%가 해외 운송 물류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수출바우처 등 종합지원(58.1%), 무역금융 지원 확대(56.5%)도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지원해 주길 원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산업은 고용 유발이 높고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유의 이름으로 'K-푸드'를 알리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또 한류스타 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 간 콜라보 제품 생산, 식품 특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선정

청소년들에 300만원 후원 등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10호 청소년 선정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선정식에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호와 10호로 선정된 청소년을 초청해 각각 후원금 300만원과 의류·미술 도구 등을 전달했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광주은행이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을 선발해 대학 진학까지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자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9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으로 지내면서도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뛰어난 인재이며, 10호 청소년은 한부모 가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예술 분야 지역 미래 인재다.

광주은행은 두 청소년을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해 대학교에 입학까지 학습지원금과 예술지원금을 후원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공부방, 광주은행 장학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로 선정된 청소년은 총 10명으로, 꿈나무 1~4호는 대학 입학 후에도 광주은행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지역 우수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1630회 금요 조찬포럼 개최

개그맨 엄영수 초청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그맨 엄영수를 초청해 1630회 금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엄영수씨는 '웃으며 사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머감각이다.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치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을 본적이 없다"며 유머의 힘에 대해 역설했다.

또 "유머감각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을 별로 없다. 평소 폭넓은 지식과 끊임없는 훈련으로 유머감각을 키울 수 있다"며 "재미있는 기사와 말을 모방하다 보면 어느새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고,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웃음 코드가 있다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8일 홍종학 전(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디지털 전환기 로컬 중소상공인 생존전략'을 주제로 1631회 강연을 진행한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매주 금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각 분야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96회)

당 첨 번 호						2등 보너스숫자
1	12	16	19	23	43	3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39,391,175	1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9,791,984	85
3	5개 숫자일치	1,447,442	2,924
4	4개 숫자일치	50,000	141,700
5	3개 숫자일치	5,000	2,386,598

국제 금값 상승에 국내 금 거래량 7개월 만에 최대

g 당 8만5720원…10월 1196.3kg 거래 중 개인 비중 47.51%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금 거래량이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온스당 2057.20달러를 기록했다.

연초인 지난 1월 3일 온스당 1836.1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 상승했다.

특히 전날에는 금값이 온스당 2067.1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8월 2069.40달러로 마감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처럼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금값도 오르고 금 시장도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KRX 금시장에서 지난 1일 금 1kg 현물의 종가가 g당 8만572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거래일 대비 1.07% 오른 가격이다.

미니 금 100g의 종가도 g당 0.85% 오른 8만5610원을 기록했다.

월별 금 거래량의 경우 지난달 1222.8kg으로 집계됐다. 1385.5kg을 기록했던 지난 4월 이후 최대치다.

구체적으로 금 거래량은 5월 10180.1kg, 6월 1092.0kg, 7월 827.8kg, 8월 905.1kg, 9월 629.3kg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월 1196.3kg으로 다시 1000kg을 넘으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의 금 거래 참여도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 1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49.58%였다가 8월 33.36%까지 줄었으나, 9월 36.18%, 10월 47.51%로 다시 커졌다. 다만 11월 개인의 비중은 36.59%였다.

금 가격 상승은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삼성 이웃돕기 성금 500억 기탁 지난 1일 삼성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전달식에는 삼성전자 서준영·황준 사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999년부터 25년간 지속적으로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8200억원에 이른다. 〈삼성 제공〉

LH광주전남본부 '지역협치포럼' 개최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최근 '2023년 하반기 LH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LH광주전남지역협치포럼'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김일태 전남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지자체와 학계, 지방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포럼은 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신우진 전남대 교수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대거 편입에 따른 고령자 친화적 주거사업 모색을 위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역공간정책으로서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를 주제로 김명식 LH토지주택 수석 연구원의 발표와 참석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법제화와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비율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이고 광주지역의 민간위주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년 일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와 관련한 LH와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보-카카오뱅크 100억 규모 보증 시행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은 카카오뱅크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4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신보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카카오뱅크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약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광주신보 홈페이지(www.gjsinbo.or.kr)에서 상담예약 후, 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보증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상한 협약이 설정돼있으며,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15일까지 접수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매년 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과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선정한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도 재포상이 제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